

화순군 인구 6만1331명… 21개월만에 ‘깜짝 증가’

전월대비 21명·20대 청년도 ↑
‘1만원 임대주택’ 지원 등 요인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화순군 인구가 21개월 만에 소폭 증가했다.

13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화순군 주민등록상 인구가 6만1331명으로 전월 대비 21명 증가했다.

화순군 인구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21개월만이다.

20~29살 청년 연령대에서 27명이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화순군은 올해 청년·신혼부부를 대

으로 시행한 ‘만원 임대주택 사업’ 2차 모집 세대가 전입 절차를 마친 것이 인구 증가의 주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만원 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화순군이 지역 아파트를 임대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1만원의 임대료만 받고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화순읍 소재 66㎡(20평) 형 임대 아파트의 가구당 임대보증금 4800만원은 화순군이 부담한다.

화순군은 그동안 총 100가구를 공급했으며 이 가운데 42가구 청년 52명이 타지역에서 전입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인구감소세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화순군의 인구 증가 현상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희망을 보게 된



화순군이 올해 처음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원 임대 주택’ 사업을 실시했다. 사진은 해당 주택단지 전경. 화순군 제공

다”며 “내년에도 만원 임대주택 100가구를 공급하는 등 2026년까지 총 400가구를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어르신 인생이야기’ 구술집 발간

곡성 지역 80세 이상 22명 선정
6·25 등 인생·삶 274쪽으로 정리

곡성군(군수 이상철)은 ‘어르신들의 인생이야기’ 일곱 번째 구술집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어르신들 인생 이야기’는 지역의 80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11개 읍면별로 각각 2명씩 총 22명을 선정해 그들의 삶을 274쪽에 걸쳐 정리된 구술집이다.

구술집에 담긴 이야기들은 어르신들의 삶의 여정을 다루며, 각기 다른 배경과 경험을 통해 그들의 삶과 지혜를 공유한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감정과 교훈을 선사하고, 지역사회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술집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과 같은 한국 현대사의 어려운 시기를 몸소 겪으며, 그러한 시절의 아픔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살아왔다. 이들이 들려주는 생생한 삶의 이야기는 어



려움을 웃음과 함께 극복하고, 과거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드라마처럼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이 구술집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을 60년에서 90년에 걸쳐 담아내고 있다. 그들의 인생 경험, 일상의 삶, 그리고 마을의 문화적 가치와 역사를 기록하며 노인복지 분야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어르신들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박물관 같은 가치 있는 보물로 개인의 역사를 넘어 고스란히 녹아든 지역 공통의 자산이다. 구술집이 발간되는 과정과 결과가 곡성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밑거름이 되어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어 가는데 자양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장성군, 민원 담당자 상황 대응 역량 강화

장성군은 군청 1층 민원봉사과에서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훈련은 대응 조치 단계에 입각해 장성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민원인 폭언 상황이 발생하면 담당자는 먼저 폭언 중단을 요청하고 민원인의 진정을 유도한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사전 고지 후 보호장비를 통해 상담내용 녹음을 시작한다. 민원 담당자와 방문 민원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비상벨을 눌러 경찰을 호출한다. 민원인을 출동 경찰에 인계하고 나면 상황이 종료된다.

장성군은 이 같은 모의훈련을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민원 담당자의 대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민원 응대가 잦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도 추후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자체 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나주시 동강면, 장애인 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봉사활동

나주시 동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평소 집 안 청소가 어려운 장애인 가구를 방문해 주거환경개선봉사를 펼쳤다.

해당 가구는 집 내부와 마당에 음식물 쓰레기와 온갖 잡동사니가 쌓여있었지만 심신이 온전치 않아 오랜 기간 방치돼왔다.

13일 나주시 동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따르면 위원과 공무원 10여명은 집안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를 치우고 수북이 쌓인 먼지를 닦아내며 쾌적한 보금

자리로 재탄생시켰다.

김남식 지사협 민간위원장은 “바쁜 일상 속 찝찝한 날씨였지만 장애인 이웃의 안정된 일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지사협이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김경숙 동강면장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준 지사협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박송엽 기자



함평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11~12일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펼쳤다.

함평군 여성단체협의회 제공

함평군, 연말연시 김장나누기 행사

함평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서옥란)가 지난 11일~12일까지 이틀간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13일 함평군 여성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16개 여성단체 8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소외계층에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전달해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원들은 1000여 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가 지역 내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부자가정 등 취약계층 230가구에 전달하며 건강 상태와 동절기 대비 주거 환경을 점검하고 안부를 살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군민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을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영광군, 도로 제설작업 준비 현장 점검

영광군은 13일 단주리 도로정비자재창고를 방문해 제설작업 준비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광군수는 제설덤프, 살포기, 굴삭기 등 제설장비 작동상태 등을 점검하고 친환경고상제 및 액상제 등 제설자재 비축 현황을 확인했다.

금년 제설장비는 15톤 덤프트럭 6대 및 1톤 트럭 1대, 읍면별 트랙터 76대 등 예년보다 대수를 늘려 준비했고 제설자재는 친환경 고상제 1910톤, 액상제 9만 리터 등 동절기 필요 자재량 대비 90%를 미리 확보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요조사
영광군, 내년 상반기

영광군은 오는 20일까지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영광군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2024년 평생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으로,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내실 있는 강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조사 분야는 군민평생교육, 읍·면 행복학습센터, 성인문해교육 분야이며, 조사 내용은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평생교육 참여 경험, 평생교육 희망 분야 및 내용, 평생교육 이용에 대한 만족도 등이다.

수요조사는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되며, 온라인 조사는 영광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현장 조사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신청하면 된다.

영광=김도윤 기자

현수막 재활용 전략사업 추진
화순군, 탄소중립 기여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현수막 재활용 전략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맞춰 폐현수막 재활용 및 캠페인을 통해 탄소중립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전남도 옥외광고물 기금 공모사업(도비 100%)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현수막 재활용 전략사업은 폐현수막을 활용하여 재활용품 제작 및 주민 참여형 캠페인을 통해 지역주민의 인식 개선과 환경보호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폐현수막을 활용한 큰물고기 만들기 프로젝트의 기획, 시행, 조성 등의 과정들을 주민들과 함께 진행하여 폐현수막을 활용한 물고기자루 및 신발주머니 등을 시범적으로 제작하고 캠페인을 통한 탄소 감축과 불법 현수막,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통해 폐현수막과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어 탄소중립에 큰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순=김선중 기자

장성군, 2기분 자동차세 부과
내달 2일까지 납부

장성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3억 3700만원(1만 878건)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 이륜차(125cc 초과)다.

단, 자동차세 연납 차량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감면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도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잔액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추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세무회계과(061-390-7286)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장성=유봉현 기자